아시시 평화기도 40주년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 아시시 정신의 날

## 제1부 · 그리스도인 일치와 평화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페 2,14)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2시 작은형제회 정동 수도원 성당**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초안 · 2026. 9. 22.**

## 서방 교부의 평화 말씀 — 아를의 성 카이사리우스 (c. 470–542)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 14,27)

평화는 참으로 정신의 맑음이며, 영혼의 평온이고, 마음의 순박함이며, 사랑의 끈이고, 자애로운 친교입니다.

평화는 미움을 없애고, 전쟁을 그치게 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교만한 이들을 낮추며, 겸손한 이들을 사랑합니다.

평화는 불화하는 이들을 화해시키고 원수들을 서로 화목하게 합니다.

평화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평화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평화는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평화는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자신을 높일 줄 모르며, 교만으로 부풀어 오를 줄도 모릅니다.

평화는 모든 이에게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평화 그 자체가 안식이며, 평온이며, 평화입니다.

✢

그리스도인이 이 평화를 살아갈 때, 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평화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거스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의 유산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당신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찾으십시오.

평화를 놓쳐 버린 사람은 다시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귀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집』 제174편 「요한복음에 따른 평화의 선함에 관하여」에서

## 동방 교부의 평화 말씀

[ 대주교님 제공 예정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 추천해 주실 동방 교부의 평화에 관한 글을 한국어로 옮겨 싣습니다.

## 기도 순서

### 1 시작 성가

떼제 · 3–5번 반복

모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 2 시편 기도

떼제 Magnificat 시편 130(129) 순례자의 노래

Magnificat(내 영혼이)을 처음에 3–5번 반복하고, 시편은 한 절씩 돌아가며 읽은 뒤 Magnificat으로 응답합니다.

**1)**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 Magnificat

**2)**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 Magnificat

**3)**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Magnificat

**4)**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Magnificat

**5)**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Magnificat

**6)**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Magnificat

**7)**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 Magnificat

**8)**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Magnificat

## 3 말씀 봉독

에페 2,14-22 · 그리스어와 한국어

그리스어 봉독 → 한국어 봉독 → 떼제 성가 (3–5번 반복)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그리스어 봉독 — 정교회 봉독자 / 한국어 봉독**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 4 잠시 묵상

침묵

말씀 안에 머물며 함께 침묵합니다.

## 5 청원 기도

각 청원 뒤 떼제 후렴

**사회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전통 안에서 같은 주님을 부릅니다.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한마음으로 청합시다.

### 1. 정교회

빛과 평화의 주님, 동방의 거룩한 교회들과 한국정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소서. 마음의 침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는 이들이 당신의 빛으로 조명되게 하시고, 그 고요한 평화가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 떼제 후렴

### 2. 성공회

화해의 직무를 저희에게 맡기신 주님(2코린 5,18 참조),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 한반도를 굽어보소서. 서로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풀리고, 남과 북의 모든 이가 대화와 화해의 길에서 다시 만나 한 식탁에 앉게 하소서.

◎ 떼제 후렴

### 3. 개신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당신께서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던 창조세계와, 전쟁과 재난과 가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기억하소서. 저희가 정의와 평화와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하여 교회의 담을 넘어 함께 일하게 하소서.

◎ 떼제 후렴

### 4. 가톨릭

모든 이를 하나 되게 부르시는 아버지, 사십 년 전 아시시에서 여러 교회와 종교의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그 희망을 오늘 저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맞아, 다미에타에서 술탄을 형제로 만난 그의 용기로 저희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 떼제 후렴

**사회자** 주님, 저희의 소리 내어 바친 기도와 마음속에 품은 기도를 모두 들어 주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6 주님의 기도

각자 자기 교회의 말과 언어로 함께 바칩니다.

## 7 마침 기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대주교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한국어 번역을 함께 따라 기도합니다.

[ 대주교님 제공 예정 ] 대주교님 기도문 한국어 번역 게재 예정

**◎ 아멘.**

## 8 마침 성가

떼제 · 3–5번 반복

성가가 끝나면 이어서 제2부 강의가 시작됩니다. 성당 안에서는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 제2부 주제 강의

[ 대주교님 제공 예정 ] 강의 제목 · 목차 · 핵심 요약 — 대주교님 제공 예정 — 제안 주제: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마음의 침묵에서 세계의 평화로

### 강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세계총대주교청 한국 정교회 대교구장

통역: 한국 정교회 대교구 통역팀

- **15:00** 강사 소개
- **15:05** 주제 강의 (통역 포함)
- **16:45** 감사 인사
- **16:55** 대주교님 강복